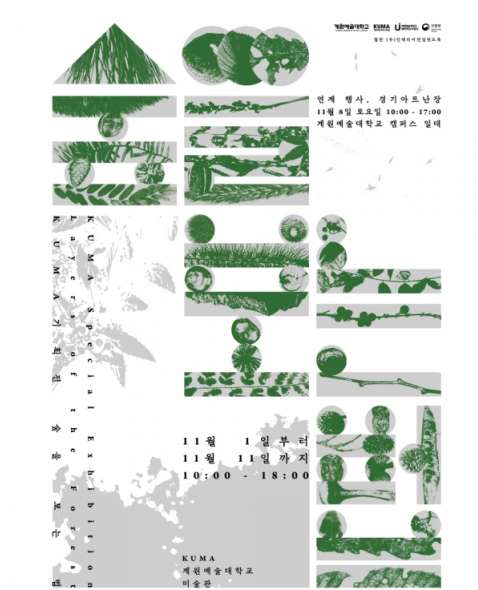


## 숲을 기록하고 해석하다, 계원예술대학교 KUMA 미술관 기획전 개최

손영철 | 승인 2025.11.07 09:47

**내부 전시와 참여형 프로젝트가 연결되어 캠퍼스 전체를 전시장으로 확장**



계원예술대학교 KUMA(Kaywon University Museum of Art) 미술관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기획전 '숲을 보는 법'을 개최한다. 전시를 통해 교실을 넘어 캠퍼스 전역을 전시장으로 확장하며, 교수와 학생이 함께 만든 예술교육의 실험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KUMA 미술관의 '캠퍼스미술관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교육과 창작이 교차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을 제시한다. 단순히 완성된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기록·기록·창작의 과정을 전시형식으로 풀어내며 '학습이 곧 예술'이 되는 과정을 구현했다.

기획 총괄을 담당한 KUMA 미술관 최정심 관장은 "이번 프로젝트는 예술대학의 창작 에너지를 교실 밖으로 확장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제 공간 속에서 협업과 창작으로 경험하도록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에는 교내 5개 학과가 공모를 통해 참여했다. 각 학과는 수업 과정에서 다룬 주제를 시각화하고, 교수와 학생이 협업한 결과물을 전시 형태로 발전시켰다. 시각디자인과 최슬기 교수와 마스터 정우석 디자이너는 숲의 산물을 조형적 문자로 변환한 '문자채집 A-Z'를, 전시콘텐츠디자인과 윤효진 교수와 박지희 작가는 미생물 세계를 시각 언어로 재구성한 '보이지 않는 숲'을 선보인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김용원 교수는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자연을 기록한 영상작업 '숲의 잔상'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인식 차이를 탐구한다. 순수미술과 홍승철 교수와 학생들은 회화·설치·사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장작의 숲'을 시각화했다.



KUMA 미술관 내부 전시 외에도 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에는 이동형 갤러리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이 설치된다.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은 현장 전시로 이어진다. 이는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 시민에게도 열린 예술교육의 장을 마련한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이번 전시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진작가 미니 리(Minny Lee)가 초청 작가로 참여한다. 그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류학적으로 탐구한 'Encounters' 시리즈를 통해 국제 예술 교류의 기반을 열어간다. 또한 11월 8일에는 그래픽티 작가 위젯(Wiget)과 시치(Sichi)가 참여하는 팝아트 드로잉 퍼포먼스도 예정돼 있다.

KUMA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교육의 실험성과 협업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배움이 전시로 이어지고 예술이 교육으로 환류되는 새로운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계원예술대학교 KUMA 미술관, 숲을 관찰하고 창작하는 특별한 기획전 선보여

A 배정환 기자 · © 승인 2025.11.07 11:03 · 21면

캠퍼스 전체를 예술 공간으로, 참여형 전시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과 팝아트 라이브 드로잉까지



계원예술대학교(Kaywon University of Art & Design) KUMA 미술관이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캠퍼스 전역에서 기획전 ‘숲을 보는 법’을 선보인다. 동시에 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참여형 전시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을 11월 30일까지 운영하며, 관람객과 학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험형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 내부 전시와 더불어 지하로 연결된 구조물 벽면에서 상설로 진행되는 팝아트 라이브 드로잉을 포함하여, 캠퍼스 곳곳의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총괄 기획은 KUMA 미술관 최정심 관장이 맡았다. 그는 “계원의 자연환경과 ‘계수나무 동산’을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창작의 숲으로 확장하고자 했다”며, 이번 전시가 예술과 교육, 자연이 교차하는 새로운 형식의 실험적 전시라고 설명했다.

전시는 ‘관찰-기록-기록-창작’의 흐름을 따라, 외부 작가와 교수, 학생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과정을 담는다. 완성된 작품이 아닌, 예술이 쌓이고 확장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이동형 갤러리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작품은 현장 전시로 이어진다. 11월 8일에는 그래픽티 작가 위제트(Wiget)와 시치(Sichi)의 팝아트 드로잉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초청 작가의 작품도 함께 만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진작가 미니 리(Minny Lee)는 나무를 인간의 초상처럼 바라보는 ‘Encounters’ 시리즈를 선보인다. 뉴욕 ICP 졸업 후 현재 미국 댈러스대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자연을 기록하는 일은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며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협업한 학제 간 프로젝트도 공개된다. 총 5개 학과가 교내 공모를 통해 참여했으며, 수업의 기획과 과정을 전시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시각디자인과 최슬기 교수와 마스터 장우석 디자이너는 숲의 산물을 조형적 문자로 재해석한 ‘문자체집 A-Z’를, 전시콘텐츠디자인과 윤효진 교수와 박지희 작가는 미생물 세계를 시각언어로 풀어낸 ‘보이지 않는 숲’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과 김용원 교수의 ‘숲의 잔상’은 인공지능 시선으로 자연을 기록한 영상작업으로, 인간과 기술의 인식 차이를 탐구한다. 순수미술과 홍승철 교수와 학생들은 회화·설치·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의 숲’을 시각화하며, 이소요 작가의 ‘플라스티퀴티’와 아카 이브 전시 ‘사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선보인다.

‘숲을 보는 법’은 예술교육의 실험성과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자,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사유하는 다양한 시선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KUMA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교육·환경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미술관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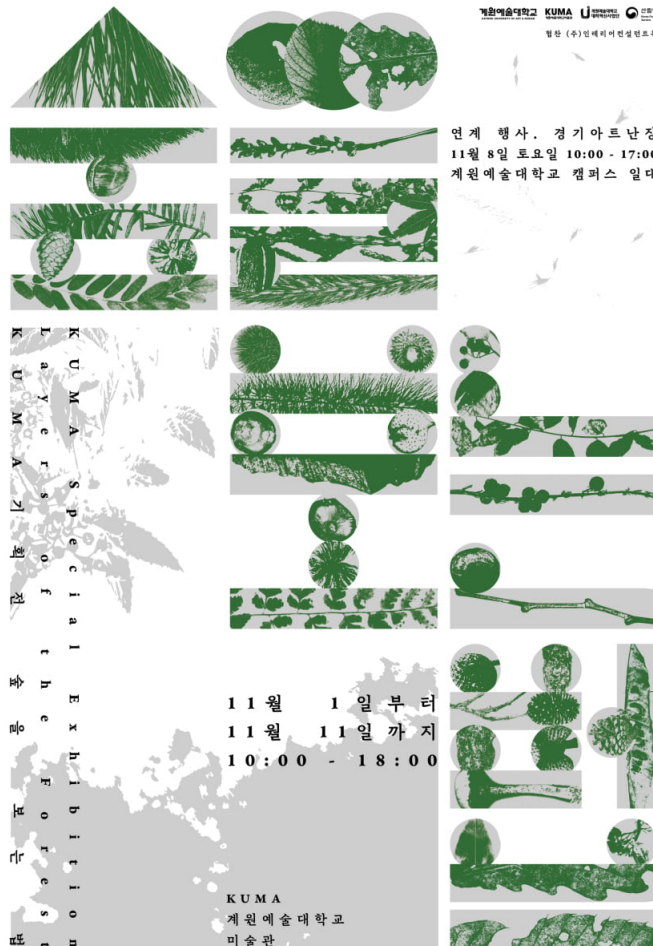
[홈](#) > [JOB&JOY](#)

## 계원예술대학교 KUMA 미술관, 캠퍼스가 참여형 전시장으로 변한다



입력 2025.11.07 11:24 | 수정 2025.11.07 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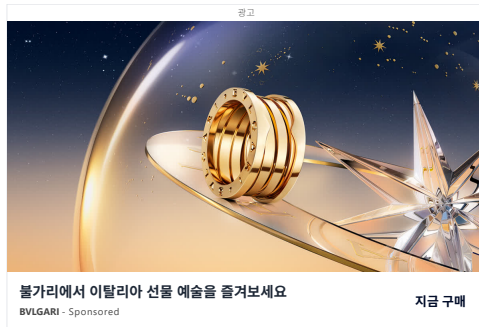
한경잡앤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계원예술대학교 캠퍼스 내 세 공간에서 KUMA(Kaywon University Museum of Art) 미술관이 기획한 '숲을 보는 법(Layers of the Forest)'을 선보인다.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KUMA 미술관에서 내부 전시가 진행되며, 캠퍼스 잔디광장에서는 참여형 프로젝트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이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팝아트 라이브 드로잉 상설 작품이 설치되며, 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캠퍼스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확장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의 첫 단계를 구성한다.





불가리에서 이탈리아 선물 예술을 즐겨보세요  
BVLGARI - Sponsored

지금 구매

'숲'은 수많은 생명과 물질, 시간이 겹겹이 쌓인 살아있는 기록으로, 이번 전시는 숲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예술적·교육적 탐구가 어떻게 교차하고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전시는 관찰-기록-기억-창작의 흐름을 따라 외부 작가, 교수, 학생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과정을 제시하며, 관람객은 숲을 대상으로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질문하며 새로운 감각적 경험을 하도록 초대된다. 전시에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진작가 미니 리가 초청 작가로 참여한다. 그는 나무를 하나의 초상으로 바라보는 Encounters 시리즈를 선보이며,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인류학적 시각으로 탐구한다. 미니 리의 참여는 KUMA 미술관의 국제 교류 시도를 알리는 중요한 장이기도 하다.

교수와 학생이 협업한 작품들도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비교과 학점제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5개 학과가 참여해 수업의 기획과 과정을 전시 형식으로 기록하며 교육적 피드백의 장으로 확장했다. 시각디자인과는 최솔기 교수와 마스터 장우석 디자이너, 학생들이 숲의 산물을 채집해 조형적 문자로 발전시킨 '문자채집 A-Z'를, 전시콘텐츠디자인과는 윤효진 교수와 박지희 작가가 미생물 세계를 시각 언어로 재해석한 '보이지 않는 숲'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과 김용원 교수의 '숲의 잔상'은 인공지능 시선을 통해 자연을 기록하며 인간과 기술의 인식 차이를 탐구한다. 이소요 작가의 '플라스티퀴티'는 매립지 생태를 통해 인간 시간이 자연 속에 투영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아카이브 전시 '사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은 생명의 지속성과 기억의 형태를 탐색한다. 순수미술과 홍승철 교수와 학생들은 회화, 설치,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매체로 '창작의 숲'을 시각화한다. 또한 캠퍼스 잔디광장에서는 전시콘텐츠디자인과가 운영하는 참여형 전시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교내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를 통해 전시 기회가 부여된다. 11월 8일에는 그래피티 작가 위제트와 시치의 팝아트 드로잉 퍼포먼스가 오후 1시 파라다이스홀 앞 잔디광장에서 진행된다.

한경잡앤조이 온라인뉴스팀 기자 jobjoynews@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제이앤피메디파트너스, 연세대 바이오헬스기술지주회사와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 체결  
산돌,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마이리얼트립, '마이팩' 패키지에 스위스·이태리 등 유럽 3개국 확대 출시  
강북 메가스터디학원 중계관, '2027 대입 상위권 N수 합격 전략' 공개  
부산 패션 중소기업,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외 판로 확대 성과

#### 추천정보

AD

소변 참기 힘들다? 전립선이 망가진 신호.. "전립선비대증"  
로또 1등,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했더니.." 밝혀진 충격 '진실'

#### 추천뉴스

by



40세 이상 남자라면 꼭 해봐야 할 현실 게임

AD

론칭 3년 만에 누적가입자 4천만 모은 K플랫폼

"범용 D램, HBM 수익성 추월" 고객사 늘어난 반도체, 내년은7기2026 대전망

AD

33살 연봉 5000만원이면 듀오 가입비 얼마?

AD

고지혈증 진짜 원인"혈관 피딱" 집에서 싹 뺀고 완치한 후기



제337호 - 2025.11.3



맘대로즐기는 AI챗 군티플

알플챗

한경BUSINESS    한경MONEY    한경JOB&JOY

회사소개    구독신청    광고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자윤리강령    고객센터    사이트맵

SNS 채널

한경BUSINESS

한경MONEY

한경JOB&JOY

한국경제 미디어그룹

한국경제  
한경아카데미  
TESAT

한국경제TV  
텐아시아  
29초영화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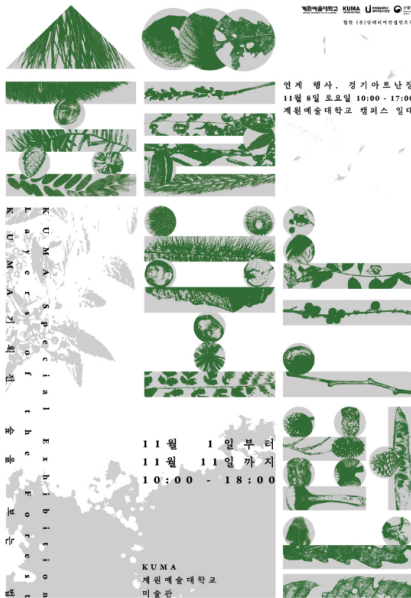
BOOK  
생글생글

㈜한경매거진엔텍 통신판매업신고 : 중구02559호 사업자등록번호 : 104-81-47761 대표자 : 하영춘  
주소 : 서울 중구 광파로 463 한국경제 6층 구독문의 : 02-360-4841 FAX : 02-360-4837  
Copyright by 한경매거진엔텍 co., Ltd. All rights reserved.

## 계원예술대학교 KUMA 미술관, 기획전 ‘숲을 보는 법’ 개최

캠퍼스 전역을 무대로 한 참여형 프로젝트와 국제 작가 참여로 창작의 숲을 체험하다

기사입력 2025-11-07 10:05:10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계원예술대학교 KUMA(Kaywon University Museum of Art) 미술관이 기획전 ‘숲을 보는 법’을 캠퍼스 전역에서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을 넘어 교정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확장한 실험적 프로젝트로, 예술과 교육, 그리고 자연이 교차하는 새로운 형식의 전시로 주목된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KUMA 미술관에서 진행되며, 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참여형 전시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이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지하로 연결된 구조물 벽면에는 팝아트 라이브 드로잉이 상설 전시돼, 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캠퍼스 미술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다.

이번 기획은 KUMA 미술관 최정신 관장이 총괄했다. 그는 “계원의 자연환경과 ‘계수나무 동산’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창작의 숲으로 확장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관찰-기록-기억-창작’의 흐름 속에서 외부 작가, 교수, 학생이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을 해석하는 과정을 담는다. 완성된 작품이 아닌, 예술이 축적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질문한다.

KUMA 미술관 내부 전시 외에도 캠퍼스 곳곳에서 창작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된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이동형 갤러리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직접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발된 작품은 현장 전시로 이어진다. 오는 11월 8일에는 그레피티 작가 위젯(Wiget)과 시치(Sich)의 팝아트 드로잉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초청 작가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진작가 미니 리(Minny Lee)가 참여한다. 그는 나무를 인간의 초상처럼 바라보는 ‘Encounters’ 시리즈를 선보이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사유하는 인류학적 시선을 제시한다. 뉴욕 ICP를 졸업하고 현재 미국 뢰거스대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자연을 기록하는 일은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며 이번 전시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번 전시는 교수와 학생이 협업한 학제 간 결과물도 함께 공개된다. 총 5개 학과가 교내 공모를 통해 참여했으며, 수업의 기획과 과정을 전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시각디자인과 최슬기 교수와 마스터 정우석 디자이너는 숲의 산물을 조형적 문자로 재해석한 ‘문자채집 A-Z’를, 전시콘텐츠디자인과 윤효진 교수와 박지희 작가는 미생물의 세계를 시각언어로 풀어낸 ‘보이지 않는 숲’을 선보인다.

또한 애니메이션과 김용원 교수의 ‘숲의 잔상’은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자연을 기록한 영상작업으로 인간과 기술의 인식 차이를 탐구한다. 순수미술과 홍승철 교수와 학생들은 회화·설치·영상 등을 통해 ‘창작의 숲’을 시각화하며, 이소요 작가의 ‘플라스티퀴티’와 아카이브 전시 ‘사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선보인다.

‘숲을 보는 법’은 예술교육의 실험성과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자,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사유하는 다양한 시선이 만나는 플랫폼이다. KUMA 미술관은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교육·환경의 교차점을 탐색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미술관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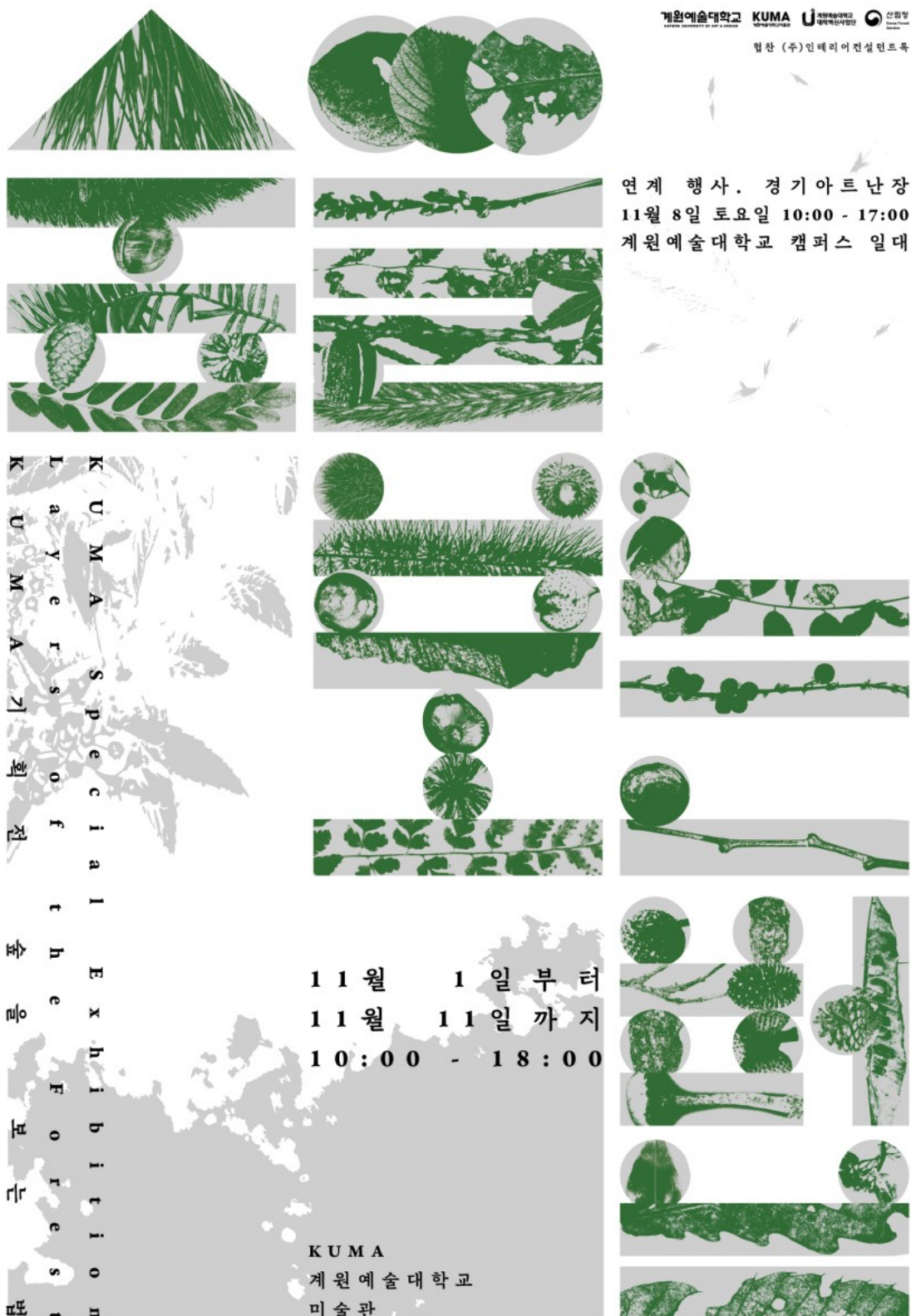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연을 예술로 재해석하다'...계원예술대학교 KUMA 미술관 기획전 개최

✎ 김재원 기자 | ⌚ 승인 2025.11.07 10:10

'숲을 보는 법' 전시, 교수·학생 협업 작품과 국제 작가 참여로 창작 과정 시각화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선보이는 전시, '숲을 보는 법'이 계원예술대학교 KUMA(Kaywon University Museum of Art) 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캠퍼스 전역을 무대로 인간과 자연, 예술의 관계를 사유하는 장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전시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미술관 내부에서 진행되며, 캠퍼스 중앙 잔디광장에서는 참여형 전시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이 11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또한 지하로 연결된 구조물 벽면에는 팝아트 라이브 드로잉이 상설 전시돼, 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캠퍼스미술관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된다.

KUMA 미술관 최정심 관장은 "계원의 자연환경과 '계수나무 동산'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창작의 숲으로 확장하고자 했다"며, 이번 전시가 자연과 예술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의 만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는 외부 작가, 교수, 학생이 각자의 시선으로 자연을 해석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담는다. 완성된 작품보다 창작 과정 자체를 보여주며, 관람객에게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는 참여형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잔디광장에 설치된 이동형 갤러리 '자연관찰자의 집\_계원'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QR코드를 통해 참여 신청이 가능하며, 선발된 작품은 현장 전시로 이어진다. 11월 8일에는 그래피티 작가 위제트(Wiget)와 시치(Sichi)의 팝아트 드로잉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초청 작가로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동하는 사진작가 미니 리(Minny Lee)가 참여한다. 그는 나무를 인간의 초상처럼 바라보는 'Encounters' 시리즈를 선보이며,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탐구한다. 뉴욕 ICP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자연을 기록하는 일은 기억을 보존하는 일"이라고 전했다.

교수와 학생이 협업한 학제 간 프로젝트도 공개된다. 시각디자인과 최슬기 교수와 마스터 장우석 디자이너는 숲의 산물을 조형적 문자로 재해석한 '문자채집 A-Z', 전시콘텐츠디자인과 윤효진 교수와 박지희 작가는 미생물의 세계를 시각언어로 풀어낸 '보이지 않는 숲'을 선보인다. 애니메이션과 김용원 교수의 '숲의 잔상'은 인공지능의 시선으로 자연을 기록하며 인간과 기술의 인식 차이를 탐구한다. 순수미술과 홍승철 교수와 학생들은 회화·설치·영상 등을 통해 '창작의 숲'을 시각화하며, 이소요 작가의 '플라스티쿼티'와 아카이브 전시 '사명: 종자를 지키는 사람들'도 함께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KUMA 미술관이 예술교육의 실험성과 협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이자,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며 사유하는 다양한 시선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다. KUMA는 이번 전시를 통해 예술·교육·환경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개방형 미술관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김재원 기자